

최종 합격한 마지막 충원 합격자의 예비 번호

충원 합격 순위의 의미가 뭔가요?

대입 정보 포털 ‘어디가’는 대학별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전년도 결과에서 충원 합격 순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

2024학년까지만 해도 고려대는 충원 합격 순위를, 동국대는 충원율을, 성균관대는 충원 인원을 발표하는 등 공개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.

참고로 충원 합격 순위는 최초 합격자 발표 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을 합격시킨 순서를, 충원 인원은 충원된 인원을, 충원율은 충원 합격 인원을 모집 인원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충원 인원을 표기할 때 일부 대학은 최초 합격자를 뺀 인원을, 일부 대학은 최초 합격자를 포함한 인원을 표기하면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.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

의회가 2025학년부터 충원 합격 순위로 통일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지요.

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연구원은 “충원율보다는 충원 합격 순위가 몇 번까지 충원됐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알려준다. 대학별로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험생으로서는 결과를 비교해 이해하기 수월한 면이 있다”라고 설명합니다.

보통 전년도 대입 결과를 참고할 때 3개년을 살펴보므로, 충원 합격 순위, 충원 인원, 충원율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모집 인원이 1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충원 합격 순위가 10이라면, 마지막 충원 합격자의 예비 번호가 10번이라는 의미입니다. 충원 인원이 10이라면 10명이 충원됐다는 뜻이에요. 다만, 충원 인원만으로는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돌았는지 알 수 없지요. 충원율이 100%라면 모집 인원인 15명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갔고 충원 인원이 15명이었음을 의미합니다.

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@naeil.com